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6년 9월 15일

제 23 호

• 발행인 : 임국희 • 편집장 : 황인우
• 주 소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4278-0450, 070-7501-3842

아나운서클럽 정례 모임과 함께 창립자 황우겸 고문 미수연 개최

한국JC로 맺어진 강신호 회장 동산고 후배 서한샘 박사 등도 함께한 황우겸 고문 미수연

8월 30일 여의도 열빈, 내외 귀빈 등 100여 명 참석해 성황

3분기 정례 모임이 황우겸 고문 미수연을 겸해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회장 임국희) 정례 모임이 강영숙, 김동건, 박종세, 전영우, 전응덕, 최만린 고문 등 회원 70여 명과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회장, (사)한국방송인동우회 한영섭 회장, 황 고문의 50년 지기 민근식 변호사, 전 국회의원 서한샘 박사, 한국JC특우회 역대 중앙회장단 등 100여 명의 내 ·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8월 3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열빈에서 열렸다.

임국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특히 우리 클럽을 만들고 개척하신 황우겸 고문님의 미수연을 겸한 뜻 깊은 자리이니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국내 최고 원로 아나운서인 황우겸 고문의 일생을 요약한 김동건 고문의 약력 소개와 김규홍 부회장이 제작한 5분짜리 황우겸 고문 영상자서전 시청 후 임국희 회장이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88세 생신을 축하하는 순금 미수기념패와 금일봉을 증정했다.

한국청년회의소(Korea Junior Chamber)를 통해 친동기간같이 지내온 강신호 회장, 강영숙 고문의 부군인 방우회 한영섭 회장, 인천 동산고 14년 후배인 서한샘 박사의 축사 순서에서 서 박사는 "동산고의 살아있는 전설, 평생을 자랑스럽게 살아오신 황 선배 내외가 연리지連理枝처럼, 비익조比翼鳥처럼 사시길 바란다."라며 "영원한 아나운서, 만세!"를 외쳤고, 1951년 KBS 입사 동기인 임택근 고문이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안했다.

대한민국서예문인화원로총연합회 회장 우전 맹관영 회원은 '111세 황수皇壽를 누릴 때까지 건강하시라!'며 축복과 결실을 담은 동양화 〈홍시도〉를 선물했고, 매니큐어화가 서금랑 회원이 늘 따뜻한 격려와 각별한 사랑을 보내주신 내외분을 위해, 제22호 회보에 실렸던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보내와 이금희 회원이 대신 전달했다. 또 한국JC특우회 중앙회장협의회 임동수 대표가 순금 두꺼비를 증정하기도 했다.

정홍숙 회원이 오광수 시인의 '보고픈 사람이 있거든'을 암송했고, 시인 이후재 회원은 '**황**량한 조국의 산하 앞에 **우**렁한 목소리로 마이크 잡고 **겸**양한 친구가 된 푸른 방송인'이라고 삼행시 '춤추는 지팡이'를 읊었다. 2012년 대학가요제 출신인 CBS 이봉규 아나운서는 대학원생 후배와 함께 축가 〈사랑으로〉를 선사했고, 이병혜 회원은 경품으로 이디야 커피 선물세트를 제공했다.

111세 황수皇壽를 기원하며 동양화 선물
독특한 재료로 그린 매니큐어화도 증정
대학가요제 출신 후배의 축가로 분위기 고조

강신호 회장, 참석자 전원에게
동아제약 상비약 세트 선물과 경품 후원

1991년 클럽 모태인 아나운서동우회 설립자
황 고문 감격의 답사에 뜨거운 박수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참석자들은 '아나운서, 야구인, JC인'으로서 '평생, 친구가 재산'이라고 강조하며 "가난한 아나운서를 만나 아이 셋을 키우며 교사로 일한 아내에게 공을 돌린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답사를 마무리한 황우겸 고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1929년 11월 16일 인천에서 출생한 황우겸 고문은 1946년 당시 동산중 투수로서 제1회부터 4년간 청룡기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인연으로 2015년 11월 9일 제70회 개막전 시구자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성균관대 재학 중인 1951년 9월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독보적인 야구 중계방송을 선보였고 〈스타 탄생〉의 사회자로 인기를 누렸다.

1956년 동갑인 권경애 여사와 혼인한 황 고문은 1960년 4.19 후 개구기開口機 노릇을 한 아나운서들에게 비난이 쏟아지자 4월 26일 28명의 아나운서들이 참여한 〈방송중립화선언〉을 주도했으며, 그 해 8월 7일자 경향신문에 '아나운서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방송 중립화와 생활에 특전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아나운서 퇴자退字의 변辯'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KBS를 퇴사했다.

그러다 1961년 5.16 후 KBS가 TV 방송을 준비할 때 다시 영입되어 1961년 12월 KBS TV 방송을 개국하고 초대 아나운서실장을 지내다 1963년 대한항공 상무이사로 이직했다. 1952년부터 한국JC와 인연을 맺은 황 고문은 1964년 제13대 회장에 이어 우신무역 상사를 경영하던 1980년 한국JC특우회 제2대 중앙회장을 지냈다.

특히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라는 신념으로 1991년 아나운서동우회를 결성하고 '자랑스러운 후배상'을 제정해 후배들을 격려하는 등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의 오늘이 있게 한 주인공이다.

일본 오사카에서부터 제주, 부산, 대구, 안동, 광주, 전주, 청주 등 원근을 막론하고 달려온 참석자 전원에게는 푸짐한 선물도 제공되었다. 고가의 동아제약 상비약 세트 선물과 경품을 후원한 강신호 회장, 와인을 협찬한 서울JC특우회 제15대 이정도 회장, 최신식 디퓨저와 소이캔들을 제공한 서울JC특우회 제35대 김낙규 회장 등 한국JC특우회의 후원으로 치러진 황우겸 고문 미수연은 사랑과 존경으로 채워진 흐뭇한 잔치였다.

미수연 특집 3, 4면에 계속

왼쪽부터 50+코리안 현정주 이사, 아나운서클럽 황인우 편집장, 김상준 감사, 김규홍 부회장, 임국희 회장, 50+코리안 한주형 회장, 김동건 고문, 황인용 회원, 박민정 사무총장, 황량 편집위원

인생 후반전 위해 50플러스코리안과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아나운서클럽(회장 임국희)은 (사)50플러스코리안(회장 한주형)과 '액티브 시니어의 삶을 설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국희 회장과 한주형 회장은 8월 3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열빈에서 양 기관이 보유한 인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래형 일자리 창출, 소셜라이브방송 제작 · 진행, 건강 · 취미 활동 등에 힘을 보태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기로 뜻을 모았다.

50플러스코리안은 은퇴자들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2013년 8월에 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그 동안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영상자서전을 만드는 '스마트영상작가'와 알기 쉬운 모바일용 동영상 매뉴얼을 만드는 '영상맥가이버'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펼쳐왔다.

다음엔 12월 9일(금)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콘래드호텔 〈2016한국아나운서대회〉에서 만나요

제53회 '방송의 날' 특집

칼럼

디지털 시대 아나운서의 방송 패러다임

김상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

나의 첫 축구 중계방송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지역 축구 명문 강릉상고와 강릉농공고와의 경기가 한 달 후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결정과 함께 중계방송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거의 40년 전 KBS 강릉방송국에서 나의 아나운서 2년차 때 일이다.

나는 즉각 선배들의 축구 중계방송 녹음테이프를 틀어 놓고 '따라 하기'부터 시작했다. 집에서도, 방송국에서도 틈만 나면 흉내를 내며 연습을 했다. 길을 가면서도 사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중얼거렸다. 얼마나 연습에 몰입했으면, '허우대는 멀쩡한 총각이 참 안 됐어! 실성한 사람 같으니… 쯧쯧쯧' 하며 이웃 아줌마들이 수근대더라는 이야기를 하숙집 아주머니에게서 전해 들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하다보니까 까마득하게 느껴졌던 중계방송이 조금씩 되는 듯 했다. 그런데 문제는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슛!' 직전의 문전 상황에 대한 빠른 묘사였다. 도저히 따라 할 수가 없었다. 녹음테이프 속 선배의 중계방송 구절이 지금도 생각난다. "박이천 잡았습니다. 박이천, 두 명의 수비 앞에서 이리저리 모션 취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제치고, 왼발로 감아서 그대로 터닝 슛! 골인 됐습니다!' 어떻게 그 급박한 상황을 저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해 낼 수 있을까? 그건 2년차 아나운서인 내가 따라 하기에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일이었다. 하도 답답하여 본사 아나운서실로 친분이 있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선배로부터 문전 묘사에 대한 '비법'을 전수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거 말야, 그렇게 복잡하게 말 할 필요없어! 딱 네 마디만 해. '결정적인 찬스! 결정적인 찬스! 그대루! 그대루! 슛, 골인! 됐습니다.'하면 돼, 문전 상황이라 사람들 함성 소리 때문에 묻혀서 잘 몰라! 전체 말 길이도 비슷하고!"

이번 리우 올림픽은 참가한 선수만 기다린 스포츠 제전이 아니다. 스포츠광인 나에게도 올림픽은 4년마다 찾아오는 최대의 즐거움이다. 특히 아나운서들의 스포츠 중계방송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재미있는 올림픽 중계방송이었다. 국제 스포츠 중계방송의 공식 멘트처럼 쓰였던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와 같은 감동 강요식 중계방송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시청자 스스로 느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감정이입을 시키는 중계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스케치와 묘사는 담담했고, 경기의 해석 능력은 스포츠 전문가 이상이었다. 그러면서 해설자와 유쾌한 토크를 통해 또 다른 재미도 창출하는 재치도 발휘했다. 해설자가 두 사람씩 있는 인기 종목의 중계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듯 새로운 즐거움과 흥미를 주었다.

스포츠 중계방송뿐 아니라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형태가 변하고 있다.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맞도록 방송 프로그램의 형식과 포맷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고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개성이 있으면 바로 진행자로 발탁되고, 콘텐츠만 있으면 즉각 전문가로 패널로 섭외한다. 고무적이게도 후배 아나운서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읽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변화로 새로운 아나운서의 방송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나운서로 다져진 바탕 위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감정 표현도 솔직하고 세련돼 있다. 프로그램이 요구하면 말춤도 따라 춘다. 어색하다고 보는 사람이 어색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싸이와 토크를 진행하던 미국 NBC TV 진행자가 춘 말춤이나, 그 후배 아나운서가 춘 말춤이나 전혀 다를 바 없다.

전 KBS 교양국 주간
위성방송국장
전 나사렛대학교
방송미디어학과 교수

『아나운서 임택근』을 출간한 고려대 김민환 명예교수는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가 대중 곁에 있었기에 행복했고, 대중은 그가 있었기에 외롭지 않다."고 집필 이유를 썼다.

방송은 대중 매체이다. 방송이 대중에게 다가가지 않고서는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오늘날의 대중은 욕구와 취향도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무한 경쟁의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대중에게 더 다가가려는 후배 아나운서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이제는 '아나운서 출신이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아무 준거도 없는 잣대로 일제강점기의 모국어 교사라도 되라는 듯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여 변모하려는 그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아날로그 사고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끊임없이 후배 아나운서들이 새롭게 시도하고 변신하도록 응원을 보내자. 그래서 아나운서가 언제나 방송의 중심에 서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자.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

개인상 **아나운서상 CBS 박재홍** 〈박재홍의 뉴스쇼〉 제작·진행 〈굿모닝 뉴스 박재홍의 오늘 하루〉 진행

"자기 일처럼 기뻐해준 동료들이 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고 싶어 시작했던 아나운서 생활이 어느덧 14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신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은 제 방송 생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마디가 되어 앞으로 진행자로서 그려 나갈 제 삶에 매우 특별한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나운서의 자질이 부족했던 저를 늘 인내와 사랑으로 감당해 주셨던 CBS 아나운서부 선배님들과 늘 아낌없이 응원해 주었던 후배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특별히 이번 수상은 〈박재홍의 뉴스쇼〉와 〈굿모닝뉴스〉에 이르기까지 앵커로서 당사자 인터뷰 섭외 등 뉴스 아이템 선정 과정부터 포털뉴스 전송까지 프로그램 전 제작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수상을 계기로 한국 방송 환경에서 우리 아나운서들의 역할이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좋은 진행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동료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격려가 반드시 필요조건으로 요구되는데, 우리 CBS 아나운서부만의 끈끈한 연대의식과 애틋한 사랑이 부족한 저를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동료가 조명을 받고 주목 받을 때 기꺼이 박수쳐주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준 우리 CBS 동료들은 저의 가장 큰 자랑이요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방송을 사실 MBC, KBS, SBS, TBS, 극동방송 등 많은 선후배님들이 너무나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진행자로서 '아나운서' 자랑스러운 그 이름을 잘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한국방송대상, SBS 뉴스가 대상 수상

정부기관 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SBS가 단독 및 연속 보도한 '한국형 전투기 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 뉴스가 2016한국방송대상의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고대영) 주최로 9월 2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KBS 이현주, MBC 이성배, SBS 최기환 아나운서 공동 진행으로 열린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253개 출품작 중 대상은 KF-X 사업의 문제점을 다뤄 대책 마련의 계기를 제공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여론화한 SBS 뉴스에 돌아갔다.

개인상에는 아나운서상 수상자 CBS 박재홍을 비롯해 보도기자상 SBS 안정식, 진행자상 탤런트 김석훈, 앵커상 CBS 이재웅, 성우상 설영범 등 19명, 그리고 성우 오승룡 선생이 공로상을 받았다.

◀ 9월 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3회 방송의날 축하연에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 50명이 참석했다

① 황 고문의 사진과 '88'을 양각한 순금 미수기념패 증정
②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회장의 축사
③ 미수를 맞은 황우겸 · 권경애 내외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④ 황 고문의 약력을 소개하는 김동건 고문
⑤ 한국방송인동우회 한영섭 회장의 축사
⑥ 야구중계를 넘겨준 황 선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박종세 고문
⑦ 인천 동산고 후배인 서한샘 박사의 축사
⑧ 맹관영 회원의 동양화 〈홍시도〉처럼 복된 결실 거두소서!
⑨ 한국JC특우회 회원이기도 한 김규홍 부회장의 외빈 소개
⑩ KBS 입사 동기인 임택근 고문의 제의로 "만수무강을 위하여!" 건배!
⑪ 서금랑 회원의 매니큐어화를 이금희 회원이 대신 증정합니다
⑫ 박민정 사무총장의 사회는 언제나 품격 있고 재미있어요
⑬ KBS 〈생로병사의 비밀〉 MC였던 오유경 아나운서의 헌화
⑭ 정흥숙 회원의 축시 암송
⑮ 대학가요제 출신 이봉규 아나운서와 서강대 후배 이준형의 축가
⑯ 한국JC특우회 중앙회장협의회를 대표해 이남석, 임동수 회장이 순금 두꺼비 선물
⑰ 한국JC특우회 회원을 비롯한 외빈들
⑱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들

황우겸 고문 米壽宴

사진 제공
이장춘
김광일
이형균

미수연 사진 4면 하단에 계속

회 | 원 | 동 | 정

KBS사우회 여성위 강좌 통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김규은, 이세진, 채영신, 이인숙, 황인우, 임화숙(전 KBS)

KBS사우회(사우회장 전봉찬)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인숙)가 주최한 (사)한국커피협회(회장 이상규) 바리스타 강좌에 회원들이 참여해 필기, 실기시험을 거쳐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규은, 이세진, 이인숙, 채영신, 황인우, 임화숙 등 회원 6명은 충북보건과학대 호텔제과음료과 교수인 이상규 회장의 방학기간을 활용해 염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7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목, 금 두 시간씩 원효로4가 한국커피협회에서 커피향에 취해 지냈다. 이들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도전까지 완주한 26명의 참가자와 함께 어느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맛보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출연

조 길 자(전 KBS)

KBS 제3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9월 11일 방송에 출연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만들어진 비영리사단법인 BBB 코리아에서 전화 통역 봉사자로 활동하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1963년 입사한 조 회원은 1965년 결혼으로 인해 퇴사하고 5년간 국군방송에서 파월장병에게 가족 사연을 전하는 〈희망의 구름다리〉를 진행했다. 그 후 무관인 남편을 따라 콜롬비아에서 3년간 거주하며 Haberana 국립대학 어학원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했다.

봄온아나운서아카데미에서 새 출발

김 상 준(전 KBS) 감사

언론학 박사로서 2003년부터 재직한 동아방송예술대 방송연예과 교수 정년퇴임 이후 초빙교수직을 8월자로 사임했다. 앞으로 봄온아나운서아카데미(대표 성연미 회원) 자문위원으로서 예비 아나운서 교육과 아나운싱 지도자 연수, 방송언어 상담과 한국어 음성언어 연구에 전념할 예정이다. 또한 KBS 한민족방송 〈서울말 평양말〉 매주 5회 회당 3분 방송을 계속하면서, 〈한국어 아나운싱과 스피치〉, 〈방송언어〉, 〈스피치커뮤니케이션〉, 〈표준한국어발음사전〉 등의 저서도 다시 손질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도전 기회 변화 〈차차차〉 출간

신 은 경(전 KBS)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며 방송, 강연, 집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변화된 삶으로 이끌자는 인생 후반전 계획의 일환으로 〈차차차〉(클라우드 나인)를 출간했다. '챌린지Challenge, 찬스Chance, 체인지Change'의 뜻을 담은 〈차차차〉에는 전작인 〈홀리 스피치〉에서 못다 했던 내용과 신문 칼럼, 그리고 매순간 소통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담았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으로 선임

이 숙 영(전 KBS)

6월 28일 열린 대한약사회 2016년도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에서 법률 분야 장한별 변호사와 함께 언론 분야 신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한국해비타트 행복나눔 음악회 진행

최 윤 영(전 MBC)

6월 22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해비타트 행복나눔 음악회를 진행했다. 최 회원은 작년 11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한국해비타트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 알림 |

고맙습니다

8월 31일까지 입금순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 분

신은경(전 KBS) 50만 원
박경희(전 KBS) 50만 원
이금희(전 KBS) 50만 원
황인용(전 TBC) 30만 원

축하합니다

이성수, 이계행(전 KBS) 11월 12일(토) 정오 서울 압구정성당에서 딸 유민 양 혼사

조충현, 김민정(KBS) 9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혼인

정용조(KBS울산) 9월 3일 아들 도현 군 혼사

이슬기(KBS) 9월 3일 회사원과 혼인

채수일, 이숙영(전 KBS) 8월 27일 딸 윤지 양 혼사

한선미(광주CBS) 6월 11일 득녀

조의를 표합니다

이영혜(전 SBS) 7월 28일 모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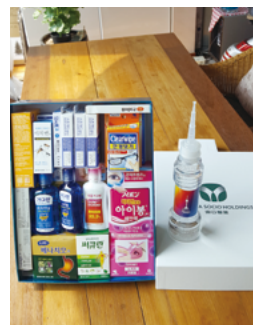
박경희(전 KBS) 6월 20일 부군상

김성주(전 MBC) 6월 9일 부친상

수고하셨습니다

OBS 신미정 아나운서 8월 31일 퇴사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특별게재

이금희, 18년간 정든 〈아침마당〉을 떠나다

편집자 주 : 이금희 회원이 6월 30일 〈아침마당〉을 떠나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1998년 6월 15일에 잡았던 〈아침마당〉의 마이크를 2016년 6월 30일에 놓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TV를 켜고 이웃처럼 친지처럼 지켜봐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4천 5백여 일의 아침이 참으로 의미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나 뵈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출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 앞에 눈물 흘리면서도 무릎 꿇지 않고 떨쳐 일어서시는 모습,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시는 모습,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있는 인생 교과서를 한 권씩 읽곤 했습니다.

달콤한 아침잠의 유혹을 떨치고 일어나 방송국에 도착해 보면 저보다 먼저 와있던 제작진과 스태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방송 준비를 하는 동료 선후배들을 보면 언제나 마음 뿌듯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꿈꾸던 아나운서가 되어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KBS 덕분에 부족한 제가 감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새로운 MC가 진행하는 〈아침마당〉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당〉을 떠나지만 방송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저녁 6시 KBS 쿨 FM(89.1MHz)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으니까요.

동이 틀 무렵 강변북로에서 만나던 새벽의 아름다움 대신, 이제는 저녁 무렵 붉은 노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유명인에 대하여

편집자 주 : 한국홍보협회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일본에 알리고자 발간한 일어종합지 〈아시아공론〉 1980년 6월호에 실린 글을 영어, 일어에 능통한 임국희 회장의 외손자, 사회복무요원 박동우(91년 생) 군이 번역했다. 당시 〈MBC 여성살롱〉을 진행하며 직접 외손자를 돌보았기에 동우 군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임 회장은 오는 10월 제대하는 외손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이 글을 보내왔다.

2014년 12월, 외손자를 격려하러 논산훈련소 수료식에 참석한 임국희 회장

"나는 바빠서 라디오 대담 같은 것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신 유명한 분이 계셨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에 얘기가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면, 왠지 천박한 인상을 주잖아요. 하하하..."라며 나의 출연 교섭을 완강하게 거절하시는 것이었다. 거절당하면 당할수록 뭔가 유익한 말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간절히 부탁을 드린 끝에 결국 출연 승낙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나는 그것에 큰 기대를 걸어, 우리나라 여성들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한 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다.

방송 당일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바쁘셨던 모양인지 그 유명인은 방송 시작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 모습을 드러냈다. 조금 더 빨리 오시도록 하여, 대담의 내용에 대해 미리 토의를 하고, 내용면에서도 진행면에서도 더욱 알차고 부드럽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담당자의 관례이다. 그러나 그날은 시간상 여유가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채 스튜디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테이블로 향하면서 주제를 기억하고 계신지 어떤지 걱정이 되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면 될까요?"하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양손을 벌리고 어깨를 으쓱이면서 "뭐든지 물어 보시죠."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때까지 많은 유명인사가 출연해주셨지만 "이거다!" 싶은 대답을 얻은 적이 없었기에, "심봤다! 오늘에야말로 주옥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마음속에서 춤을 추며 대담을 시작했다.

"뭐든지 물어보시죠."라고 들었기에 나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여성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부터 꺼내기 시작했다.

"어어, 결혼 말인가요? 결혼은 즉 이성과 이성의 결합이기도 하면서..."

이럴 수가! 이래선 마치 결혼식에서 주례들이 하는 말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나는 서둘러 학생 문제로 화제를 바꿨다.

"네, 그러고 보니 요즘 입학 시즌이군요. 그러니 새 봄을 맞이하여 청운의 뜻을 품고, 개나리가 만발한 교정에서..."

흐르는 물처럼 주저 없이 계속되는 유명인의 웅변도, 정리해보면 중학교 입학식 때 들을 법한 교장의 훈화를 빌려온 것과 다를 게 없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걸 보면 어떤 질문을 한들 결과는 뻔했다. 선거유세 중인 국회의원 후보같이 자기 선전만 계속할 뿐이었던 것이다. 열변을 토해내는 동안 청자인 나 따위는 이미 안중에 없는 듯, 15분간 혼자서 주절거리던 끝에, "말 하고 싶은 건 더 많은데, 워낙에 조금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서요.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하고, 마이크를 향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휙'하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었다.

마치 복싱의 타이틀매치에서 도전자를 코너에 몰아넣어서 마음껏 두드려 패고는 KO승을 따내고 의기양양하게 떠나는 챔피언처럼... 물론 온통 두들겨 맞은 도전자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생방송이었다는 것이다. 그 때의 나의 비참한 모습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였을 것이리라.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는 소설가, 시인, 학자, 변호사, 의사, 여성운동가, 정치가, 스포츠맨, 여러 직종의 저명인사들이 출연하여 방송의 격도 높이면서 청취자에게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주신다. 그것에 감사를 표하는 것은 비단 나 혼자뿐만이 아니고 청취자에게서 받는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개중에는 '무엇이든 물어보라'며 가슴을 펴는, 소위 거물에 속하는 유명인도 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 질문 따위는 머릿속에서부터 무시하고는 제멋대로 말하고, 방송을 망쳐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그런지 방송 뒤에 말하는 것 또한 남다르기 짝이 없다.

"아이고, 방송만큼 바보 같은 것도 없어요. 특히 아나운서의 자질이 문제야. 당신, 지난번에 '이건 A다' 하고 말했더니,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그러니까 B라는 말씀이신가요?'라고 했지? 내가 좀 화가 나서 좀 거칠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절대 B가 아니라 A야."라고 단언해줬더니, 그래도 "에휴, 그러니까 B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멋대로 결론 내고는 "내가 그걸 또 한 번 고쳐줄 시간도 안 주고, '오늘은 여러 모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는 마이크 스위치를 꺼버렸잖아. 당신, 사람을 불러놓고 얼간이 취급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 못 해? 이러니까 내가 방송을 절대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칫 자신들이 방송 출연해주는 것이 방송국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방송이라는 것이 청취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잊고, 방송국이 자신의 선전도구, 혹은 국민에게 호령하기 위한 도구인 양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류의 유명인사를 위해 방송을 망쳤을 땐, 청취자에게 정말 면목이 없다.

이런 식의 유명인사의 이야기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지식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조금 들어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속이 텅 빈 말들일 뿐이다. 그것에 비해 일상생활을 통해 얻은 사적인 이야기를 적은 청취자의 소박한 편지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해준다. 어깨에 힘을 주고 등을 쫙 펴고는 어리석은 헛소리를 줄지어서 하는 '뭐든지 물어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혹시 방송을 망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오늘도 방송국의 현관에 들어선다.

방 | 송 | 가 | 소 | 식

2016 리우올림픽 중계, 미디어 방송 환경 변화 실감케 해

지구촌의 축제 제31회 하계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남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206개국, 1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리우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양궁4, 태권도2, 사격, 펜싱, 골프 등에서 금메달 9개를 비롯해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획득했다.

KBS는 올림픽 중계를 위해 조건진, 서기철, 유지철, 최승돈, 이재후, 조우종 캐스터와 이영표, 이은경, 양용은 해설위원 등 90명, MBC는 김성주, 김완태, 김나진, 이성배, 이재은 캐스터와 정지현, 방수현, 황경선 해설위원 등 70명, SBS는 배기완, 김정일, 정석문, 배성재 캐스터와 현정화, 장재근, 전기영 해설위원 등 100명 규모의 방송단을 파견했다.

지상파 3사는 급변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SNS도 활용하며 8월 5일 개막식부터 22일 폐막식까지 매일 10시간 이상 중계방송을 실시했다.

KBS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개최

KBS 월드라디오가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 세 돌을 맞이한 공모전 예선에는 이란, 우간다, 폴란드, 브라질, 중국 등 무려 56개국에서 총 416건의 영상이 접수되었다. 참가자 중 결선에 진출한 3명은 9월 초, 약 1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KBS 아나운서의 한국어 교육, 서울 관광, 멘토 만남, 다양한 문화 체험 등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및 최종 우승자 3인의 방한기는 특집으로 제작되어,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라디오 전파 및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된다.

엄지인 〈아침마당〉 새 안방마님 돼

7월 1일부터 이금희 회원의 뒤를 이어 엄지인 아나운서가 윤인구 아나운서와 함께 〈아침마당〉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KBS 공채 33기로 입사한 엄지인 아나운서는 〈우리말 겨루기〉, 〈KBS 9시 스포츠 뉴스〉 등을 통해 빼어난 진행 솜씨를 선보여 시청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MBC

6개국 대사 초청 〈Welcome to MBC experience〉

주한 6개국 대사와 외교관을 초대한 〈welcome to MBC experience〉의 진행자로, 서인 아나운서와 양승은 아나운서, 이재은 아나운서가 활약했다. 이재은 아나운서가 리셉션 진행을 맡았고, 서인 아나운서와 양승은 아나운서는 만찬 사회를 맡았다. 특히 서인 아나운서는 정확한 한국어와 유창한 영어를 동시에 선보이며 회사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리우 패럴림픽 홍보대사'에 이성배

〈진짜 사나이〉 〈복면가왕〉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성배 아나운서가 '2016 리우 패럴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평소 선행 및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이 아나운서는 재능기부 형태로 홍보대사직을 맡아 리우패럴림픽 알리기에 앞장 서고있다.

이재은에 이어 박연경까지 〈MLB 라이브 2016〉의 두 여신 인기

이재은

박연경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정오까지 4시간이라는 파격적인 편성으로 8명의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전하는 〈MLB 라이브 2016〉! 이재은 아나운서에 이어 박연경 아나운서가 방송 당일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경기 결과까지 다루기 위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MLB 핫토크〉의 MC로 발탁되었다. 또한 박 아나운서는 iMBC와 '해요 TV' 어플을 통해 시청자와 실시간 채팅하며 쌍방향 소통하는 방송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SBS

박선영, 배성재와 함께 〈풋볼 매거진 골〉 진행

금요일 새벽 1시에 방송되는 SBS 대표 스포츠 매거진 프로그램 〈풋볼 매거진 골〉의 여자 진행자가 바뀌었다. 장예원 아나운서 대신 박선영 아나운서가 배성재 아나운서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최기환 김구라 진행 〈맨 인 블랙박스〉 신설

8월 중순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블랙박스 영상 뒤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는 〈맨 인 블랙박스〉를 신설, 최기환 아나운서가 김구라와 함께 진행하며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CBS

아나운서들, 사내 '청진기' 프로그램 진행

청진기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의 기적'의 줄임말로, CBS 소개와 방송시설 견학, 멘토링과 방송체험(뉴스, DJ)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CBS 홍보 프로그램이다. TV 녹화장에서 감독들에게 설명을 들으며 카메라도 조작해보고, 김은영, 박재홍, 정민아, 송정훈, 김윤주(사진), 김덕기 아나운서와 함께 '아나운서란?'을 주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서울 지역에서 참가한 중고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4개 지역 신입 아나운서 채용

강원영동 CBS의 전진 아나운서, 전남 CBS의 안광훈, 유영주 아나운서, 경남 CBS 신용진 아나운서, 광주 CBS 이용진 아나운서가 새로 입사했다.

이강민 서울시 일자리카페 1호점 개소식 사회

막내 이강민 아나운서가 5월 30일 홍대 '미디어카페 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일자리카페 1호점 개소식 사회를 봤다. 개소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영무 한겨레신문 대표 이사,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7월 25일 부분 개편 조은유 〈TV 주치의 무병장수〉 진행

조은유 아나운서가 7개월여 만에 다시 방송되는 〈TV 주치의 무병장수〉(평일 오후 9시 40분)의 진행을 맡았다. 조 아나운서는 초창기 〈TV 주치의〉를 맡았던 실력으로 한층 더 여유 있고 전문적인 진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쉽고 정확한 의학 지식을 전하고 있다.

김용재 강미정 제1회 부천전국대학가요제 진행

7월 31일 부천시가 주최한 '부천전국대학가요제'가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전국 198개 참가팀 중 본선에 오른 12개 팀의 무대로 펼쳐졌다. 2012년 중단된 MBC 대학가요제 이후 첫 전국 단위 대학가요제로 김용재, 강미정 아나운서 진행으로 8월 6일 저녁 6시 45분에 녹화 방송되었다.

tbs

교통방송 '상암시대' 개막

7월 4일 남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상암 S플렉스센터 내 스마티움에 새로운 둥지를 꾸렸다.

'상암시대'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라디오를 켜라〉진행자 김보빈 아나운서는 "상암동에서 새 출발을 하는 첫 방송을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다. 청취자들이 '음질이 더 좋은 것 같고 전달이 더 잘되는 것 같다'며 축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다."라고 밝혔다.

신입 조현아 선발

3개월에 걸친 2016년 tbs 교통방송 신입사원 공채에서 출중한 실력을 발휘한 조현아 아나운서가 선발되었다. 뉴스와 프로그램 진행을 교육받고 방송에 투입될 예정이다.

〈송정애의 좋은 사람들〉 기부 동참

7월 14일, tbs FM 〈송정애의 좋은 사람들〉(월~금 오전 9시~11시)이 상암동 이전 특집 '상암시대를 시민과 함께'를 방송했다. 그리고 청취자들의 축하 문자를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자 기부 참여 이벤트'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을 7월 2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febc

창사 60주년 및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평화음악회 개최〉

8월 15일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는 지난 6월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려 많은 외국인과 교민들에게 감동을 준 〈나라사랑 평화음악회〉 앵콜 공연이 있었다.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연에는 3,000여 명의 관객이 함께해 성황을 이루었다. 극동방송 전국 11개 지사 500여 명의 어린이합창단이 펼친 이번 앵콜 공연은 각종 퍼포먼스와 노래, 영상이 어우러져 특별하고도 웅장한 무대를 선사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극동방송 대표 프로그램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600회를 맞아 'Again 1973'이라는 주제로 특집 공개방송을 열었다. 8월 26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김장환 목사, 최혜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극동아트홀에서 600여 명의 방송 가족과 함께한 공개방송은 전국 12개 극동방송 라디오와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장대진, 광주지사장 승진 등 인사 이동

8월 1일 인사 이동이 있었다. 장대진 아나운서가 광주극동방송 지사장으로, 김성윤 아나운서가 제주극동방송 부장으로 승진해 28년 만에 FM방송 허가가 난 제주극동방송 개국 준비를 맡게 된다. 그리고 송옥석 아나운서가 울산, 장봉구 아나운서가 강릉 영동극동방송 발령을 받았다.

PBC

조한구 실장 제작 〈명동연가〉 8월에 토크 콘서트 열어

평화방송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 〈김도향의 명동연가〉의 오픈 스튜디오가 8월 12일 오후 7시 반 서울시청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명동연가 오픈 스튜디오 – 김도향과 친구들〉에는 유익종, 김목경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서울시민, 7080 음악 팬들과 함께했다. 〈김도향의 명동연가〉는 4월 봄 개편부터 조한구 아나운서실장이 제작하고 있으며, 9월과 10월에도 공개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TV 새 프로그램에 이정민, 신의석 투입

프로그램 조정을 통해 신설한 TV 프로그램에 이정민, 신의석 아나운서가 발탁되었다. 이정민 아나운서는 멘토들의 도움으로 주님 안에서 음악을 배우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음악 힐링 프로젝트 〈온음과 반음〉(수요일 오후 8시)의 내레이션과 진행을 맡았다. 신의석 아나운서는 성경 속 인물들이 신앙인으로 변모했던 '결정적인 하루'를 재구성하는 10월 방송 예정 토크멘터리쇼 〈성경을 찢고 나온 그 사람〉들을 진행한다.

김지현 살레시오수녀회 청소년영성포럼 진행

'자비의 특별희년 기념 제25차 청소년영성포럼'이 7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김지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렸다. 살레시오수녀회 우아청 청소년영성의 집 주최로 열린 이 포럼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특별희년'과 청소년 교육을 연결한 강의, 토론,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김지현 아나운서는 이 포럼과 함께 자비의 특별희년 관련 퀴즈로 선물을 주는 '자비의 선물' 코너를 진행해 청중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했다.

BBS

장수연 경영기획실에서 아나운서부로 복귀, 경력 사원 김명석 채용

아나운서부에 반가운 가족이 늘었다. 먼저 경영기획실 기획홍보부장으로 발령 받았던 장수연 아나운서가 지난 6월 아나운서부로 복귀했다. 또 김명석(사진) 아나운서가 경력직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해 오후 5시 라디오뉴스와 주말 BBS TV 뉴스 등을 맡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BBS불교방송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인 '만공회'가 애청자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지난 8월, 마침내 동참자 3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BBS불교방송 아나운서들은 가을에 있을 TV, 라디오 개편을 통해 시, 청취자들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전하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려 한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 거제도에 공식 휴양 호텔 지정

지난 6월 문을 연 거제도 와현해수욕장 프래밀리호텔이 아나운서연합회 공식 휴양 호텔로 지정되었다. 프래밀리호텔 김영재 대표는 "남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저희 풀빌라 호텔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아나운서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앞으로 아나운서연합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말 다듬기 눈초 이규항의 발음 이야기 13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漢字는 이미 韓國化된 韓字이다 Ⅱ

– 중국어의 四聲이 국어에서 長短音으로 定着되었다

이 규 항
• 고려대 국문학과 졸업
• KBS 아나운서 실장
• 한국어문회 한자급취득자 음성언어교육 강사
• 문교부 국어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국어의 한자 외래어에는 1930년대 서울에서 漢城式 중화요리라 불리던 「작장면(炸醬麵)→짜장면」「당초육(糖醋肉)→탕수육」「총장(葱醬)→춘장」과 「일생, 건물, 치매」와 같은 중국과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어, 그리고 「평생, 생애, 모호」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한자어도 있다. 우리의 국어학사에 기념비적인 역저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이한섭 지음. 2014년 고려대 출판부)에는 「대통령, 문학, 민주주의, 철학, 과학, 미술, 가정, 낭만, 냉장고, 단어, 방송, 신문, 안전, 자동차, 진리, 타협, 판매, 할인」 등 우리나라가 개화기 이후 일본에서 받아들인 3634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의 외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한자라는 原資材를 독자적으로 再加工, 한자의 原産地인 중국에 逆輸出, 청말淸末과 대한제국 시기의 국어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구한말久韓末의 보수주의자들은 당연히 「결혼, 친절, 건물, 천정, 수속」이란 낯선 말에 「혼인, 다정, 가옥, 천장, 절차」란 우리 고유의 한자어로 일시 저항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槪念語를 만들 때 영어를 번역하기도 하였지만 중국 고전과 佛經의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新語로 쓰기도 하였다. 演說은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한다는 뜻이며 文化는 周易의 「사람의 문화는 교화 육성된다/人文化成」에서 따왔다. 民主는 조선왕조실록에도 50회 이상 나오는데 백성(民)의 주인(主) 즉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사전이 救國敎育의 이념으로 세워진 민족의 대학 고려대가 아닌 일반 출판사였다면 친일사전으로 매도당하였을 것이다. 중국의 션궈웨이 교수의 「근대 중일 어휘 교류사」라는 책도 출판되었는데, 무려 70여 년간 한글 전용 한자혼용의 문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학계를 돌아보면 중국 학계가 부러울 뿐이다. 뜻밖에도 많은 전국의 초중등학교 과외 한자 교육 이외에도 2014년부터 중앙대는 한자 3급, 고려대는 2004년부터 한자 2급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한글과 같은 표음문자인 영어는 Heal/Hill, Sheep/Ship처럼 表記로 뜻을 알 수 있으나 한글은 성인聖人/성인成人, 광주廣州/광주光州처럼 表意性이 없다. 고고학계의 1세대 학자였던 김원룡 교수는 1967년 조선일보의 칼럼에서 오늘날 우리 국어의 현실을 예견하였다. 「造語力이 풍부한 千字정도의 한자를 아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과 백년 뒤의 결과는 어찌될 것인가. 漢子가 없어도 국어국문학은 성립(?)될지 모르나 다른 人文學은 枯死되고 말 것이다.」 音韻學의 大家였던 세종대왕도 외래어의 屬性에는 어두우셨던지 중국식 음운서를 완성한 책인 東國正韻을 펴내셨다. 동국정운의 한자발음(常例[쌍녜], 大闕[땡궐]), 세종 당시 백성들의 한자 발음(常例[샹녜], 大闕[대궐])에서처럼 이미 세종 때 한자가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朝鮮式 音韻으로 탈바꿈하여 韓字로 着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도입된 중국의 四聲은 오늘날 국어의 장단음으로 定着되었다. 한자는 表意文字인 동시에 聲調가 따르는 表音文字이다. 한자는 「表記(外裝)+聲調(內裝)」으로 된 建物과 같아 「武力[무:력]/無力(무력), 放火[방:화]/防火(방화), 賤職[천:직]/天職(천직)」에서처럼 장단음을 지키지 않고 度外視한다면 이는 Interior를 하지 않은 부실 공사를 한 건물과 같다 하겠다. 국어는 표기와 발음이 약 40% 일치하지 않는다. (필자의 假說) 이런 국어의 현실에서 왜 건국 이래 제도권에서 발음 교육이 없었을까?

이는 한글은 배우기 쉽고 읽기 쉽다는 한글 優越主義와 象牙塔 학문 위주의 국어학계 풍토에서 발음을 연구하는 응용/실용 국어학자는 배출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준 발음은 선진국 국민의 교양이요 의무이다. 韓字를 반대하는 한글전용주의는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國籍을 주지 말자는 억지 주장 같은 마음의 상투를 아직도 자르지 못한 전근대적 민족주의라 하겠다.

동아제약
노는 시간 아끼다 웃음을 잃고
휴식을 아끼다 의욕을 잃고
실수를 아끼다 기회를 잃고
다른 것을 아끼다
나를 잃는 건 아닐까
난 오늘 나에게
박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박카스
박카스
Bacchus
대한민국
피로회복제